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5일 화요일 음 10월 9일 (1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오전에 다소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 한 때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다. 아침 기온은 13~14℃, 낮 최고 기온은 19~21℃로 전망된다. 오전까지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높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0%
20%	성 산	0%
20%	고 산	0%
20%	서귀포	0%

	해뜸 06:56 해짐 17:39	달뜸 14:05
물때	만조 05:16 18:40	간조 00:12 11:16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3/19℃
모레	구름 많음	13/18℃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인도 스모그… 대기질오염 매일 '신기록'

37개 항공편 시야 나빠 회항

인도 수도 뉴델리를 '가스실'로 만든 스모그가 인도 국제공항을 드나드는 비행기를 회항시킬 정도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CNN 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37개 항공편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우회했다.

에어인디아와 스파이스젯 등 인도 주요 항공사들은 스모그 때문에 비행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만 했다.

이날 뉴델리에서는 대기 질 지수(AQI)가 999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인도 AQI 지수는 보통(101~200), 나쁨(201~300), 매우나쁨(301~400), 심각(401~500) 등으로 나뉜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스모그의 습격은 뉴델리에서 일상이 돼 버렸다. 그 탓에 인력거로 생계를 잇는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도 뉴델리를 뒤덮은 스모그.

인도 정부는 일시적으로 학교 문을 닫고, 공사를 중단하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대기오염 조사·분석 업체 에어비주얼은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개 도시 중 7곳이 인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학교 생활지도가 어려운 변화의 시대

김 관 형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최근 들어 학교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자율권이 침해당할 것에 대한 우려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검사 등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칙의 기재사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학교현장에서는 앞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개정안 시행이 이전의 지도 방식과 달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학칙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이 주체가 돼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두고서 염려하는 태도는 모든 영역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주류인 시대에 구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교육을 지탱해오던 학생지도와 관련한 변화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 단체에서 교원들에게 개정안 설문을 시행한 결과 82.7%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 학칙을 개정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근거한 범위 안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도조례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상위법과 배치되는 경우에 사안이 발생하면 갈등요인이 된다. 온전히 학교 자율에 맡겨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 중심으로 제·개정을 이룬다 해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생지도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단순하게 단정한 용모 여부를 넘어서 히피펌 머리와 무리한 피어싱과 타투까지 하는 학생도 늘어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도 학습에 필요하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불필요한 시간에는 잠시 사용을 멈추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한다. 공동체 생활은 다소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협력과 상생을 배워야 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교육활동에서 얻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하는 순간까지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패턴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변화에 맞춰 자율성 중심 생활지도 방식도 중요하지만, 자율성 안에서 규칙의 중요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전 지도 방식의 장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훈육이 힘들어 학교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올바른 가정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전문가 대부분이 예전보다 학생지도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어려움은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린마당

보이지만 느껴지지 않는 위험, 불법광고물

양 경 혁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6만730건. 작년 한 해 동안 노형동 관내에서 철거한 불법 광고물의 수다. 하루 평균 약 170개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 셈이지만 골목 구석구석 미처 철거하지 못한 불법 광고물들이 있으니 실제 게시되는 광고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도시 미관을 해친다. 가로등, 전봇대, 버스승차대 등 무분별하게 걸린 수많은 불법 광고물들이 청정 제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둘째,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 보행하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 및 강풍으로 인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이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셋째,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 광고 효과를 위해 도로변에 눈에 띄게 광고물을 게시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형동은 매일 불법 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학기에는 관내 자생단체와 협력해 관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1매당 전단 10원, 벽보 30원)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물 철거 후 뒤돌아 서기 무섭게 같은 자리에 게시돼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철거 및 계도 등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불법 광고물을 없애고,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JDC 글로벌 챌린저' 통해 해외취업 꿈 이뤄

김 정 은
JDC 글로벌 챌린저 2기

나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해외에서 일하고 싶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채용 정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JDC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2기 참가자로 선발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물류회사에 취업했다.

CS TEAM에서 근무하며 한국 파트너들과 현지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화주 또는 한국 파트너 측으로부터 수·출입 스케줄, 운임, 견적서 등과 관련해 문의가 오면 담당직원과 확인 후 신속하게 메일이나 전화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물류업계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받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늘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베트남어 학습을 꾸준히 병행하고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물류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되고 싶다.

요즘 들어 점점 해외취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해외취업 경험자로서 해외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근무환경, 급여 등 실질적인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외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지만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희망국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목표설정을 하고 온다면, 금방 적응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제주 출신의 많은 청춘들이 'JDC 글로벌 챌린저'를 통해 여러 국가와 채용정보, 지속적인 피드백과 다양한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이뤘으면 한다.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잡초의 경감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높은 저장성
페르카®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엽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양배추 브로컬리 무우 양파 농가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브로컬리 양파배추 (500㎖당 500배 희석)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 자
· 1차 살포 : 싹이 10~15㎝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 우
· 1차 살포 : 싹이 10~15㎝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 늘
· 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